

기본급 99,000원 인상! 산업전환협약 쟁취!
노동자생존권 보장!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쟁취!



지부교섭 속보

06호

2021.06.14.(월)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7차 지부교섭_사측 1차 제시안]

검토할 수준도 안된다!



7차 지부교섭이 6월 10일(목) 코스모링크에서 열렸다. 사측의 첫 제시안이 나왔지만 검토할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내용 검토를 위한 정회조차도 필요없다고 판단해 차기 교섭에서 성의있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교섭을 마쳤다.

회사는 조합원이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로 인해 퇴직할 시 해당 조합원의 직계비속 1인에 대하여 회사 내부의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측 1차 제시안>

1.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업전환협약 : 추후 제시
3. 노동자 생존권 보장
 - ① 회사는 경영위기극복 방안으로 임금동결, 임금삭감,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회사는 지역의 사업장 중에 파산,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노동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4.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1차 제시안은 임금과 산업전환협약에 대해서는 추후 제시한다고 미루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하나하나한 수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부는 작년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했던 임금인상을 고려하여 전폭적인 요구안 수용과 임금인상안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산업전환 시기에 노사 공동결정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임을 강조했다.

* 차기 교섭 : 6/17(목) 14시 30분, 지부 회의실

7차 교섭 속기록

정당한 산업전환, 공동결정 필요한 시기!

사 : 코로나로 어려운데 더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각 국가가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다. 구리도 2배 이상 뛰었다.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산업현장에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찾아가자.

노 : 경향신문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칼럼이 나오고 있다. 어느 교수가 “기업도 생존의 문제지만, 노동자도 생존권의 문제다. 근데 자기 생존권을 자기가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배제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급격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만들자.”라고 하더라. 올해 노조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 자본주의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각 산업자본들은 어려운데 투기자본은 엄청 돈을 벌고 있다.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생존권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토대다. 사용자는 노조가 협조해주면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입장을 개진할 수 없고 결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협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올해 지부 요구안은 분명하다. 공동결정하자. 참여기구 만들자. 노사 공동결정한 것은 모두 따르자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피해 보는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노동자 생존권까지 함께 보장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에 맞게 제시안 내면 좋겠다. 임금인상안도

고민해야 한다. 작년에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폭적인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겠다.

〈사측 1차 제시안 제출〉

노 : 제시안 받으면 보통 정회하고 의견을 확인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회할 정도가 안된다. 지부장이 교섭 초기에 코로나 위기 상황 등으로 노사간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때와 다르게 빠르게 교섭하자고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다. 임금은 아예 제시안이 없고, 다른 내용도 되게 선언적이고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이다. 이것도 겨우 의견 청취한다는 수준으로 제출한다면 오늘 더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도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출한 내용도 낮은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출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정회할 필요없겠다.

사 : 임금은 각 지회별로 협의 중인 걸로 안다. 그래서 추후 제시한다고 했다. 산업협약은 중앙에서도 논의 중이고, 각 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협의 중이다. 추후 제시하겠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더 협의해서 좋은 내용 내도록 노력하겠다.

노 : 산업전환 관련해서 우리 지부는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앙 눈치 본다니 안타깝다. 중앙은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좋은 내용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사용자 중에 위임장 안 낸 사업장이 있다. 오늘 낼 수 있나?

〈한온시스템 동원로엑스 위임장 제출〉